

獨島의 바다사자는 살아 있다

—제14차 IUCN 총회報告 演說要旨—

우리나라 獨島 부근에 있는 세계적 保護動物인 바다사자가 保護不足과 濫獲으로 滅種된 것으로 보인다는 外國의 그릇된 主張을 反駁解明하는 뜻에서 韓國國立公園協會 理事 金憲奎博士가 第14回 IUCN 總會에서 行한 報告演說의 內容을 옮긴다. —編輯者—

울릉도와 독도는 1465년 전 까지 于山國이란 독립국을 유지해왔으나 서기 512년 異斯夫라는 장군이 울릉도를 征伐하여 신라와 合併시킨 역사가 있고 1794년부터는 독도를 可支島라고 불렀는데 可支(바다사자의 方言)가 독도에 많이 상륙하여 새끼도 낳고 휴식도 취하기 때문이었다.

1848년 프랑스 捕鯨船 Liancourt 號가 독도를 보자 처음 발견한 것처럼 Liancourt Rock 이라고 섬이름을 지은 일이 있는데 日本 島根縣의 漁夫 中井芥三郡은 日本政府에 청원을 내고 이 Liancourt Rock 를 日本領土에 편입하고 自身에게 10年동안 漁業權을 주도록 進정한바가 있다.

日本政府는 獨島가 한국 영토인 것을 알기 때문에 中井의 청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05년 2월 22일 露日戰爭에서 日本이 有利하게 되자 島根縣 告示로서 獨島가 日本領土임을 宣言하고 섬이름을 竹島로 命名한 후 中井芥三郡에게 10年間 漁業權을 許可했던 것이다.

最近에 들어서 新聞紙上에 자주 오르내리는 日本國의 獨島領土權 主張을 볼때면 어처구니없는 反發과 그들의 알파한 속셈을 다시한번 드러다 보는듯하여 內心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이제 우리 韓民族은 그들의 主張에 귀를 기울일 필요

도 아쁘린 再論의 價値도 없음은 勿論 國家의 次元에서 國際政治의 爭點이 되기를 願하지도 않으며 어떠한 理由에서든 다시는 反復의 여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옛부터 自然을 사랑하고 生態界에 調和를 간직하며 三千里錦繡江山을 지켜온 우리民族에게 바다 사자를 멸종케 한것은 한국인이라는 日本의 西脇昌治 교수의 主張은 事實無根한主張으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독도부근에는 1953년까지도 약 500마리의 바다사자가 서식했으나 1957년 여름에 무슨이유인지 갑자기 대부분이 떼를 지어 北쪽으로 이동하고 말았다. 지금은 약 30마리가 독도 주변에서 살고 있으며 1972년 6월말에 독도 부근에서 잡힌 암컷이 大邱의 달성공원 연못에서 새끼를 낳은 일이 있고 1975년 12월 25일 울릉도의 洪淳七氏가 경비대 위문차 독도에 갔다가 西島아랫쪽에서 바다사자 한쌍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관찰한 일이 있다.

위의 사실로 보아도 日本의 西脇昌治교수가 주장하는대로 독도의 바다사자는 한국인이 전멸시켰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앞으로 바다사자가 독도에서 번식할 수 있도록 復元 될 가망도 없지 않다.